

후단 합동토론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몽준 후보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경선이라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후보직을 걸고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염원에 답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를 과거로 돌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집권은 막아야한다는

국민 여러분과 시대의 요망을 저 노무현이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젊고 새로운 리더십의 건강한 정권을 세우느냐와

3김의 구태정치를 그대로 따라하는 구시대 정권으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도 새로운 리더십의 후진타오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4강과 영국 등 주요국가가
모두 50대에게 나라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대통령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대통령 아들들이 구속되고 퇴임한 대통령 자신도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세풍, 병풍, 안풍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불행한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 점 의혹도 없는
뚝뚝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남북문제를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군사적이 대치 끝에 찾아온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다시 전쟁과 대립의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회창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노무현은 언제나 국민의 뜻을 먼저 생각해왔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한 점 의혹도 없는 뚝뚝한 노무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판단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